

I. 서론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권순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요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실태 및 여가활동 제약 요인을 규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여가활동 지원 방안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별면담과 심층면접을 통해 여가활동의 실태와 제약 및 지원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청각장애대학생 4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적 제약, 경제적 제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친구 또는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였고, 시간적 제약은 주말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경제적 제약은 씬씀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휴식적인 만족, 신체적인 만족, 사회적인 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미친다고 하였다. 넷째, 여가활동 지원 방안으로 ①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② 고비용의 여가생활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③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부여,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⑤ 여가활동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선정, ⑥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가활동, 의사소통, 청각장애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3신입교원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ksww1114@hanmail.net)

1. 연구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을 불러 왔다. 또한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 전반의 자동화·기계화 현상은 현대인들에게 노동 시간까지 단축시키며, 여가 시간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여가활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활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장의 기회로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활동이다. 현대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은 생활에 활력을 제공해주고, 사회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Hamre-Nietupski et al., 1992),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여가란 일상생활로부터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며, 단순한 휴식이나 기분전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증진해 나가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필요한 활동이다. 또한 여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욕구 불만, 좌절, 갈등, 정서적 불안 등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권이중, 1994).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불쌍한 존재, 그리고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주된 원인은 장애의 기능적 손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장애로 심화된다는 것인데, 이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또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분석해야 한다. 개인의 장애로 접근하는 미시적 패러다임이 오늘날 거시적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의 한계로 인식하게 된다(임민식, 2012).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장애인은 개인적으로 사회성 결여와 긴장감과 스트레스의 가중, 그리고 습관적 행동으로의 자기자극 등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장애인의 사회적 장애에서 탈피하여 자아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성규, 김수향, 2011).

특히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농문화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일단 농문화를 접하게 되면 농문화의 언어, 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배

우고 익히게 되어 더욱 강한 소속감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은 청인들과 함께하는 문화보다 농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어, 그만큼 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게 만들며, 여가활동에서도 청인들과 함께 하기 보다는 농인들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옥정달 외, 2010).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이 올바른 농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청인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농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 및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실태 및 여가활동 제약 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즐겨하는 여가활동 실태 및 여가활동 제약 요인을 규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여가활동 지원 방안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즐겨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 제약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넷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대학생은 2014학년도에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대학생 4명(남 1, 여 3)으로 사례별 실태는 <표 1>에 제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30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에게 1차적으로 질문 내용을 지면으로 제시하여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고, 면담을 하는 중 자신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알려 질 수 있는 내용과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현재 D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참의 뜻을 밝힌 4명의 대학생이다.

<표 1> 연구 참여 대학생의 실태

성명	성별	생년월	장애원인	주된 의사소통수단	장애발생시기	청력검사결과	전공
A	여	1994.12	원인불명	수화	1세	좌: 89dB 우: 90dB	특수교육과
B	여	1993. 1	원인불명	구화	3세	좌: 75dB 우: 70dB	초등특수교육과
C	남	1993.11	고열	수화	3세	좌:110dB 우:105dB	유아특수교육과
D	여	1994. 6	고열	수화	4세	좌:110dB 우: 90dB	사회복지학과

1) 연구 참여자 A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A가 태어났을 때 청력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 그 당시 A의 청력은 보통아이들과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가 말할 시기가 되어도 말하지 않고, 또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아 병원에 다시 데려가 보았다고 한다. A의 부모님께 의사 선생님께서 “최종하지만 딸은 청각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청진벽력과도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A의 친척들 모두 다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가 5살쯤에 구화학교 유치원을 다니면서 말하기 연습을 했다. A의 담당 교사와 함께 청진기로 진동을 느껴보기도 하고, 교사의 목을 만져봄으로써 어떻게 말하는지 그 때 연습한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체계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실제적으로 연습은 A의 할머니와 삼촌이 제일 많이 도와주었다고 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특수학교 유치원과는 다른 분위기, 사람들도 많아서 적응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특히 첫 날에 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서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 눈물만 뚝뚝 흘렸던 기억을 말해 주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를 지속적으로 계속 놀리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유난히 그 남자애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 A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 심하게 놀렸다. 그게 정말 많은 상처가 됐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항상 든든하게 보호해주어서 어렵지 않게 학교생활을 잘 해냈던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시간에 영어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가뜰이나 한국어도 발음하기 어려웠는데 당연히 영어는 더욱 더 어려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이 A의 영어발음을 듣고 웃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대뜸 반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며, “웃지 마세요! 이 친구는 귀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셨다. 그 때 왜 선생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A는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청력이 약한 것이었을 뿐인데, 교사의 그 말 이후로 반 친구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A는 농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청각장애인이다. A의 주변 농인친구들을 보면 수어를 모르는 청인부모님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크고 나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남들은 불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는 행복이라 여겼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농학교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만큼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했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A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계속 격려해주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 결과 그가 원하던 D대학교 특수교육과에 들어와 졸업할 때까지 후회 없는 학교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A는 90dB에 가까운 청력을 가졌지만 조기교육에 힘입어 현재 발음의 명료도와 듣는 능력이 양호한 편이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농인 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수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청인부모를 둔 농자녀보다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지원 교육은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여 현재 D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하여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밝은 학생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또한 농대학생연합회 S 동아리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동아리의 목적에 따라 농대학생들의 친목도모와 선·후배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교육권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B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B는 어릴 때 방긋방긋 잘 웃고, 하는 말 잘 알아듣고, 시키는 일은 행동으로 잘 옮겨서 듣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이 없다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셨다. 그러나 계속 말이 늦고 말을 잘 하지 않아 눈 여겨 보시다가 6살 때 청각 전문가에게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더니 청력이 안 좋다고 하면서 50% 정도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B는 주로 ‘ㅅ’ 발음을 잘 듣지 못했으며 발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B가 ‘아이스크림’하면 ‘아이크림’, ‘스케이트’하면 ‘케이크’라고 들려서 그렇게 발음했다. 그래서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ㅅ’ 발음을 못해서 빨대로 부는 연습, 나무막대

뭉고 말하는 연습, 입을 움직여 말하기 연습을 하여 마침내 ‘ㅅ’ 발음을 하게 되었고, 언어치료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하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려웠던 것은 받아쓰기였다고 한다. B는 다 받아쓰다고 했는데 반집, 칠자 때문에 0점 맞은 기억도 있다고 했다. 또한 과목 중에 국어점수가 제일 안 좋아서 어머니께서 친구들과 함께 글쓰기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였고, 책을 꾸준히 많이 읽다 보니까 독해력, 이해력이 좋아져서 국어성적이 올라가게 되었고, 책임지를 좋아하게 되어 학습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학창시절엔 언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인 수학, 과학 분야는 공부하기 쉬웠지만 언어영역인 국어, 영어 공부는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었다고 한다. 언어영역을 보충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지만 B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해 학교생활을 했고, 마침내 D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입학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현재 초등특수교육과에 다니면서 통합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B는 초·중·고를 공립 일반학교를 다녔기에 학교 내 특수반이 있어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장애학생들에 대하여 일반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배제되는 일들이 많았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학생보다 편견이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장애학생들이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특수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B는 청력이 매우 양호하여 특수교육은 받은 적이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반학교를 다녔다. 현재 대학 강의를 들을 때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을 받지 않고 보청기를 착용한 후 잔존청력에 100% 의지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본 연구자의 수업을 이미 2강좌를 들었으며 일반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A+와 B+의 성적을 거둔 바 있을 정도로 수업 내용을 대부분 전달받는다.

3) 연구 참여자 C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C는 93년생으로 3살 때 고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되었다. 하지만 C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C의 앞에서 청각장애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양육하셨다.

또한 C의 어머니께서는 특수학교유치원과 K언어치료센터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며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그를 교육 시키셨다. 그 덕분에 C는 5살 때 특수학교유치원을 그만두고 일반유치원으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유치원에 입학하고 난 뒤에도 C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 거의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며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받아쓰기할 때 C가 다른 사람에 비해 듣는 것이 안 좋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청각장애라고는 인지를 못했다고 한다. 청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 학년대표로 상을 탈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그래서 C의 친구들도 그를 좋아했고, 간혹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문제해결을 했다.

중1 때 갑자기 찾아온 사춘기 때문에 C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성격도 조용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한다. C가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쉽게 오해를 받았으며, 친구들이 C를 따돌리거나 조금씩 괴롭힘을 가했다. 그 때마다 C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웠다고 한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커터 칼로 베이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 뒤로 C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도 많이 하도록 노력해서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친한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하는 중 C는 특수교사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C가 가야할 길이 특수교사라고 생각했다. 고1 때부터 C는 친구들에 비해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했으며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다. 계속 그 진로에 대해 탐색해온 결과 C는 전국에서 특수교육의 권위가 높은 D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C는 입학하고 난 뒤 과 행사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열림'이라는 연합 사회봉사 소모임에 가입하여 지적장애아동이랑 자폐아동들을 데리고 직접 인지수업도 하고 문제행동을 줄이는 등 봉사활동도 열심히 임하고 있으며 열심히 참여중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구화 교수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C는 청력이 양쪽 귀 100dB이 넘는 농에 해당된다. 유아 시절 특수학교유치원과 난청전문치료실에서 특수교육을 받았다. 그 곳에서 청능훈련 및 발음훈련을 열심히 받아 청력손실치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발음명료도를 가지고 있다.

5살 때 일반유치원으로 옮겨 그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다. 사춘기 시절인 중학교 때 잠시 방황하였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왔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수교사라는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하여 D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입학하여 예비특수교사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4) 연구 참여자 D의 생육력에 대한 면담 내용

D는 아기 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해 자주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다. 어느 순간, D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D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려가셨고, 그 때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 D의 부모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셨고, 동시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D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시작하셨다.

D의 부모님은 매우 낙천적이고 현명한 분들이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D는 활발하고 쾌활한 아이로 자랐으며,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D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 속에서 밝은 아이로 컸다.

D는 한 사람과 1:1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여러 사람과의 이야기, 특히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잘 듣지 못해서 매우 불편했고,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으며, 친구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그만 모른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다. D는 여전히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잘 자랐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오해를 받고 상처받는 자신에 대한 방어가 치져서 점점 소심해지고 도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 D의 청각장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 '아! 나에게 정말 청각장애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장애로 인해서 D는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도전할 수가 없고, 그 길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정말 일상적인 전화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며 매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D는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꿈을 발견했다. 청각장애인을 돕는 사람이 되자는 꿈이었고, 그것은 자연히 어린 시절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D의 미래의 모습과 겹쳐져 '사회복지'로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D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왔고, 장애인권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도전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그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농대학생연합회 S동아리를 통해 D의 일생의 특별한 인연들을 만났다. S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배들은 D에게 D의 농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으며, 다시 밝고 명랑한 학생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D는 어릴 때부터 명랑 쾌활하며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학생이었으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속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청각장애로 인해 많은 제약과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전달받기가 어려워 좌절과 방황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 D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재학하며 미래의 꿈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2. 자료 수집 절차

1) 면담 질문지 작성

질적 연구의 면담법은 연구주제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 인식,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담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한 정보와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수집할 수 있다(최은주, 2012).

면담의 형식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비형식적인 대화, 피면담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들이 사전에 개발되어 면담 중에 사용되는 반구조화 된 면담, 주어진 척도나 사지선다형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구조화된 인터뷰 스케줄에 의한 면담이 있다. 이 중에서 반구조화 된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처럼 미리 만들어진 면담지를 사용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다(권순우, 권순복, 2006).

본 연구에서는 D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반구조화 된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한 주제이기에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면담에 대한 막연함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에서 사전 계획에 의한 질문 내용을 구성하는 반구조화 된 면담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면담이 끝난 후 면담 질문을 보완하고, 면담 실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해 논의하고 최종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청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수행하기 위한 질문지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질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면담 질문 영역과 내용

면담 영역	세부 질문 사항
여가활동의 종류	- 평소 연구 참여자의 여가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가활동 시 제약하는 요인과 극복하는 방법	- 여가활동 시 힘들게 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제약과 극복하는 방법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여가활동을 지속하는가?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점	-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여가활동 지원 방안	- 여가활동 참여 시 국가나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면담 실시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그들이 평소 학교생활 중 여가활동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여가활동 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D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대학생 4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의도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목적성 있게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자가 얻고자하는 정보를 가지고 경험한 사람을 찾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많은 대상자의 수보다 가장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장혜성, 2011).

따라서 청각장애대학생 사례 4명을 신청한 후 1차적으로 질문 내용을 지면으로 제시하여 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하였으며, 2차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때 면담 내용 분석을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 빠르게 전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차 면담 과정 중이나 면담 종료 후에 연구 참여자에게 이전 면담 내용 전사본을 이메일이나 직접 전달 방법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과 설명에 따라 수정하였다.

논문 정리 과정 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조사한 내용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면담이나 전자메일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여러 차례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기간은 2014년 4월 말부터 2014년 7월 초까지 수시로 면담을 하였고, 수화 와 함께 구화도 함께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했기에 서로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3) 면담 자료 전사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보이스트레코더(MSO-K-MA-R700)로 동시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의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또한 면담자료의 정확한 전사를 위하여 전사 작업 이후에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재차 녹음을 들으면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전사된 자료의 양은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 자간 0'으로 작성했을 때 A4용지 18쪽이었다.

3. 자료 분석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규범적 질문이 아닌 기술적 질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내용과 청각장애대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어진 연구 문제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 방법으로서의 질적 연구 접근의 타당성과 산출된 자료의 분석 방법을 진술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접근은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생활 실태와 여가활동 제약 요소 극복 방법을 이해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적합하다. 행위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행위자들의 동기,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접근은 다른 방법들이 간과하기 쉬운 행위의 구체성, 현실성, 상호성, 관계성을 증시함으로써 행위의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지, 면담 등을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유목화 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논평하였다(권순우, 2005).

4. 질적 연구의 신뢰성 확보 노력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면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 자료의 정확한 전사를 위하여 전사 작업 이후에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재차 녹음을 들으면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진실성 점검 기준 가운데 동료 연구자 조언, 참조 자료의 보관, 구성원 간 검토 등을 활용하였다(김영천, 2006).

본 연구를 위한 진실성 확보에서 첫째, 동료 연구자 조언은 면담 자료의 전사본을 가지고 연구자와 D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2인이 분석과 해석 과정이 적합한지를 살피고 분석 및 결과 도출 과정에서 반영하였다.

둘째, 참고 자료의 보관은 전사 자료와 면담 녹음 자료를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정이나 연구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셋째, 구성원 간 검토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한 내용을 점검받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형태

청각장애대학생의 주중, 주말, 시간·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형태에 대한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형태

내용 참여자	주중 여가활동	주말 여가활동	시간·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A	1) 헬스 2) 검도	1) 독서 2) 영화 감상 3) TV시청 4) 등산	1) 태권도 2) 유도 3) 국제수화 배우기 4) 캠핑(등산 포함) 5)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스쿠버다이빙 등) 6) 악기 연주 7) 댄스 스포츠
B	1) 독서 2) 등산 3) 운동 4) 인터넷기사 탐독	1) TV시청 2) 등산 3) 운동	1) 수영 2) 요가 3) 번지점프 4) 여행
C	1) 친구 사귀기 2) 자전거 타기 3) 음주	1) 각종 스포츠(야구, 탁구, 당구, 축구, 족구 등) 2) 자전거 타기	1) 사회인 야구동호회 가입 2) 캠핑 3) 여행
D	1) 킥복싱 2) 검도 3) 그림 그리기	1) TV시청 2) 영화감상 3) 그림 그리기 4) 친구 만나기 5) 독서	1) 태권도 2) 유도 3) 주짓수 4) 제과제빵 5) 요리 6) 뜨개질

연구 참여자 A~D의 주중 여가활동으로 헬스, 검도, 독서, 등산 및 운동, 인터넷 기사 탐독, 음주, 킥복싱, 미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 A와 D는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D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검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도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A는 격투기 종목인 태권도와 복싱도 예전에 배운 경험이 있어서 선수생활까지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검도도 열심히 배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다이어트를 겸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강한 여성이 되고 싶었으며 세상이 흥흥하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킥복싱은 집 근처 체육관에서, 검도는 학교에서 연구 참여자 A와 함께 배우고 있었다.

주말 여가활동으로는 독서, 영화 감상, TV시청, 등산, 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영화 감상이나 TV시청을 주말 여가활동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한국영화, 한국드라마는 자막을 제공해주는 것을 중심으로 일부 시청하고, 대부분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외국드라마와 외국영화를 중심으로 시청하

고 있었다.

시간·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연구참여자 A는 태권도, 유도, 국제수화 배우기, 캠핑,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 악기 연주, 댄스 스포츠 등 배우고 싶은 여가 활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태권도는 중·고등학교 시절 4년 동안 배우면서 2년까지 탄 경험에 있었고, 유도는 험한 세상에 충분히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는 B는 수영, 요가, 번지점프, 여행을 꼽았다. 특히,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수영을 더 배우고 싶어 했으며, 그 외에도 요가를 해서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고 싶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C는 사회인 야구동호회에 가입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야구를 배우고 싶어 했으며, 그 외에도 캠핑이나 여행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D는 태권도, 유도, 주짓수, 제과제빵, 요리, 뜨개질을 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유도 외에도 태권도와 주짓수를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한 여성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제과제빵과 요리를 통해 맛있고 예쁜 것을 만들고 싶어 했다. 또한 뜨개질을 배워 목도리나 스웨터를 만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미경(2009)의 연구 결과와 임민식(2012)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신체적인 제약이 거의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청인들이 즐기는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시 제약받는 요소와 제약 요소 극복 방법

1) 여가활동 시 제약받는 요소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시 힘들게 하는 제약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나 검도는 보청기를 끼고 해도 무관한 운동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보청기를 통해 잔존청력으로 강사의 입모양을 보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동작이나 지시사항을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 같이 보청기를 빼야 하는 운동은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방학 때 잠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소리와 단절된 상태로 강사의 몸동작만 보다 보니 배우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또 강사님은 항상 먼 곳에서 가르쳐 주어 입모양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서에 맞는 한국영화나 한국드라마가 좋은데, 자막이 없다 보니 그때그때 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A)

제약요소는 대부분 청력손실로 인한 듣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청력

손실로 인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여가활동이 현재 하지 못하는 여가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신경을 심하게 다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나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연구 참여자 B)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를 많이 했으며 정식동아리는 아니지만 뜻이 맞는 친구, 선배, 후배들끼리 임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야구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학교 동아리랑 친선시합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와서는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서 야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인 야구리그에 입단하려면 시간과 돈이 부족합니다. 특히 입단할 때 입단비용으로 보통 3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야구복과 야구모자, 야구화를 기본으로 주며 팀마다 클러브나 배트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C)

제 여가활동에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시청과 그림 그리기, 사람들과 만나 놀기, 책 읽기 등이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시청의 경우, 자막 지원이 있는 영화·드라마를 구해야 하는데 TV의 경우 자막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는 다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봐야하며, 영화 역시 자막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다운로드 할 때마다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포인트가 없을 때 받을 수 없어 모으기 위해 노력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큰 문제인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으로 생생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정기적으로 가기에는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에도 여러 도구가 필요하여 다 장만하기에는 경제적 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경제적 사정이 가장 큰 제약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통학하기 때문에 아침에 집을 나가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밤늦게 돌아오는데, 밤에는 주로 운동을 하거나 과제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시간 날 때 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D)

청각장애대학생의 여가활동 시 제약받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력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여가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A는 수영을 배울 때 보청기를 빼고 강사의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B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말해주었다.

둘째, 시간적 제약으로 연구 참여자 A와 D에서처럼 한국 드라마 또는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방영될 때는 자막 처리가 대부분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자막 처리 서비스가 된 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 불편함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D에서처럼 학교에서의 학과 수업과 다양

한 동아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여가활동을 할 시간의 부족 등을 들었다.

셋째, 경제적 제약으로 연구 참여자 C와 D에서처럼 현재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필요한 그림 도구를 구입하여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효주(2008)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학교와 학습에서 벗어날 수 없어 시간에서 제약을 받으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비용 역시 큰 제약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제약 요소 극복 방법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시 힘들게 하는 제약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화를 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수영을 신청합니다. 친구가 강사의 말을 다 통역해주면 수영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강사의 몸짓을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합니다. 강사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것을 알리고 몸동작을 한 번 더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으면, 자막이 만들어지길 기다렸다가 구해서 봅니다.(연구 참여자 A)

청력 손실로 인해 제약 되는 경우는 인터넷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는 방송하는 내용을 미리보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이 내용이구나' 하면서 봅니다. 또한 뉴스는 요즘 인터넷 기사에 타이핑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더 나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체력 같은 문제는 유산소 운동이나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운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훌라우프를 하거나, 윗몸 일으키기, 다리 운동하는 등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심으로 합니다. 운동신경은 운동한다고 회복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계속 하다보면 체력이 길러 질 것입니다.(연구 참여자 B)

돈과 시간이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가끔 주말에 만나서 캐치볼을 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리이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면 현재의 제약 요소들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C)

시간에 따른 문제는 영화·드라마 시청은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방법이 있고, 과제가 일찍 주어진 날은 미리 다 끝내고 취미활동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3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3호)

돈에 따른 문제는 영화관에 가는 것과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D)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시 힘들게 하는 제약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A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친구와 수영 강습을 함께 한다거나 영화나 드라마는 한글자막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빌려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TV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인터넷 미리보기 코너에 접속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 드라마를 보거나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C는 좋아하는 야구를 친한 친구와 캐치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반드시 사회인 야구동호회에 가입하여 좋아하는 야구를 마음껏 즐기겠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시간에 따른 문제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와 영화관에 가는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효주(2008)의 연구 결과와 임민식(2012)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럿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소리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낸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과 단점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비염이 없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던 고3 수험시절 때 갑자기 비염에 걸렸습니다. 그때 원인이 뭔지 별다른 생각은 안하고 괴로워하기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약해진 면역체계에 감기에 자주 걸렸고, 감기를 오래 방치하다 보니 비염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검도나 등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면 비염증상이 잠시 완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비염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책읽기나 영화감상 같은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변해야겠다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며, 책이나 영화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여가활동이란 남는 시간에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동아리 회장일도 하고 과 집행부 일도 하다 보니, 남는 시간에는 자연히 공부할 시간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가활동

에 치중되는 경우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과 안해야 할 일을 현명하게 분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연구 참여자 A)

장점 중 하나는 독서를 통해 저는 국어실력을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독서습관을 갖게 된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셨고, 격려를 하셨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그 시기에 논술과 서예를 배우게 되었는데 논술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했고, 자연스럽게 책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지금까지 독서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예를 하면서 한자를 같이 익히게 되었고, 한국어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기 때문에 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어실력이 급격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점은 운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TV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TV를 보게 되어 시간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TV와 가깝게 지내면서 인터넷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TV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게 되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교와 집이 멀어 학창시절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여가시간을 TV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단점이라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B)

장점으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즐기면서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나 자신도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모처럼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발이 넓다보니 가만히 쉬게 놔두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피곤한 게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발이 넓은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가끔 벽에 공을 던진다거나 가까운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농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약간 좀 달리면 바로 시외로 가는 도로가 있어서 거길 드라이브하면서 시원하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분을 느끼고 옵니다. 그럴 때 조금만 움직여도 나 자신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정신건강에도 좋고 운동을 하면서 몸도 개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많은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C)

장점으로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취미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평온해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책,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깨닫는 점이 많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책은 재미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저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책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깨달음을 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때론 자기계발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 마음의 불성실함에 대해 꾸짖기도 하고, 힘들 때 용기를 주며, 내가 앞으로 되어야 할 인간상에 다가가기 위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 자신을 통찰하고 새로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재미로 볼 때가 많지만, 무기력할 때, 지칠 때, 절망을 느낄 때, 용기와 힘을 얻고 싶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또한 그림그리기는 저에게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은, 제가 계속 그리고 그릴 때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배우고 다른 그림에서 배울 점을 찾아 노력할 때마다 제 실력은 쑥쑥 자라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성취감을 맛보았고 그것은 곧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북돋워주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제가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면 시간이 흘러도 모를 정도로 빠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가끔씩 해야 할 과제나 공부를 미룬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여가에 치중하다보면 학과 공부나 자격증 공부, 과제 수행에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해야 할 일과 여가 사이의 원만한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연구 참여자 D)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여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 요인으로 휴식적인 만족, 신체적인 만족, 사회적인 만족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휴식적인 만족으로 연구 참여자 C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즐기면서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나 자신도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며, 연구 참여자 D도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취미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활동을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평온해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체적인 만족으로 연구 참여자 A는 검도와 등산, 헬스를 통해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을 제거해 주어 현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해 주었으며, 연구 참여자 C 또한 농구와 자전거 하이킹을 통해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받으며,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인 만족으로 연구 참여자 A는 책임기와 영화 감상을 통해 교양을 쌓아 사회적인 활동을 넓히고자 하였고, 연구 참여자 B는 논술을 잘하기 위해 책임기를 생활화하여 문장력 독해력 향상에 기초가 되었으며, 서예를 통해 한자를 익히는 계기가 되어 한자 실력이 결국 국어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단점으로 연구 참여자 A, B, C는 여가활동을 하다 보니 정작 학생으로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점을 들었고,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민식(2012)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자신 만의 방법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여가활동 지원 방안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참여할 때 국가나 학교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검도프로그램처럼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학교 안에서 배울 수가 없어 밖까지 나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실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비용의 여가생활(승마, 스카이다이빙 등)에 어느 정도 비용의 부담을 없애주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연구 참여자 A)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에 대해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선수가 아니면 체육활동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쉽게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여가생활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사물놀이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함께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장애인들의 고립감 해소).

인구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의 증진을 위해 지하철역과 가까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원을 선정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비장애인들이 배우는 곳에서 언제든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우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즐겁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연구 참여자 B)

딱히 지원받고 싶어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소득 가정에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구를 좋아하지만 저소득 가정 친구라서 야구 장비를 준비할 수 없어서 우리들이 기꺼이 야구 장비를 빌려주면서 같이 놀고 했지만 그 친구에게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연구 참여자 C)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드는 비용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게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계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풍족하게 했으면 합니다.(연구 참여자 D)

이상에서와 같이 여가활동 지원 방안으로 연구 참여자 A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확충과 고비용의 여가생활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을 이야기하였고, 연구 참여자 B는 체육활동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 부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여가활동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선정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게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였고, 연구 참여자 D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보장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도연(2004)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장애인 여가시설의 확충, 가족 이외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형태와 그들의 여가활동 시 제약하는 요인과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점을 분석하여 국가나 학교로부터 그들의 여가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은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는 독서, TV시청, 인터넷기사탐독, 영화 감상, 음주 등 정적인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등산, 자전거 타기, 헬스, 검도를 포함한 각종 스포츠 등 동적인 여가활동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활동들을 종합한 결과 청인 대학생들이 즐기는 여가활동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시간적 제약, ③ 경제적 제약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약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친구 또는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였고, 시간적 제약은 주말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경제적인 제약은 썸슴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① 휴식적인 만족, ② 신체적인 만족, ③ 사회적인 만족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가활동 참여로 인하여 정작 학생으로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미친다고 하였다.

넷째, 여가활동 지원 방안으로 ①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② 고비용의 여가생활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③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부여, ④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⑤ 여가활동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선정, ⑥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게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대학생을 특정 대학 4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다수의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국가와 학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그들의 여가활동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미경 (200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효주 (2008). 청각장애학생의 방과 후 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순우 (2005). 청각장애 학교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순우, 권순복 (2006). 청각장애인의 대학원 생활과 직장생활 적응 환경에 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5(2), 115-131.
- 권이종 (1994). **사회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도연 (2004).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문음사.

옥정달, 윤병천, 유장순, 우주영 (2010). 청각장애학생의 여가활동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527-549.

임민식 (2012). 청각장애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3(2), 87-108.

장혜성 (2011). 지역사회중심교수를 시행한 특수교사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 10(3), 5-31.

최성규, 김수향 (2011). 통합교육 환경 청각장애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인식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1), 47-68.

최은주 (2012). 장애학생의 장점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amre-Nietupski, S., Nietupski, J., Krajewski, L., Maravec, J., Riehle, R., McDonald, J., Sensor, K., & Cantine-Stull, P. (1992). Enhancing integration during the summer: Combined educational and community recreation option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68-74..

Study on Current Status of Recreational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 with Hearing Impairment

Kwon, Soon Woo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recreational activities as well as constraints to recreational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reby providing measures for appropriate support of recreational activities and foundational data required to develop recreational activities programs.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re participating in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and enjoying university life by spending their time on recreational activities. Second,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and time and economic constraints were determined as main factors to limit recreational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o overcome these constraints, difficulty of communication was overcome by aid of friends or sign language interpreters while time constraint was resolved through doing activities in weekend and economic constraint was overcome through spending frugally. Third, recreational, physical, and social satisfactions were determined as the main factors to continue their recreational activities. However, subjects concerned the negative effect of recreational activities on their study due to the lack of study time. Fourth, as support measures for recreational activities, 1) expansion of various programs that can be participated regularly, 2) reduction in high cost for recreational activities, 3) providing a wide range of recreational activities, 4) providing programs that can be shared by non-disable and disable persons together, 5) selection of places that can be accessed easily for recreational activities, and 6) financial assistance to recreational activities for low income families.

Key Words : Communication, hearing impairment, recreational activities

논문 접수: 2015. 08. 05 심사 시작: 2015. 08. 12 게재 확정: 2015. 09. 02